**예레미야**  5-20-2019

**저자와 기록연대**: 예레미야는 “여호와가 던지셨다”라는뜻으로 예레미야 혹은 유다를 위험 혹은 포로되도록 던지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는 하박국, 오바댜, 에스겔과 동시대 인물로, 아나돗에 살던 제사장 힐기야의 자손이며 (1:1), 아마도 솔로문이 파직한 아비아달의 후손으로 보인다 (왕상 2:26).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다음 해이자 나보폴라살이 바벨론 왕국을 세운 주전 626년에 소명을 받아 예루살렘 멸망 직후인 586년까지 사역했다. 요시야 왕의 죽음과 유다의 죄와 멸망을 애통해함으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게 된 그는 슬픔과 탄식을 많이 표현하였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하게 섬긴 종이었다.

**배경**: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통치(주전 640-609) 중반에 사역을 시작하여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9609-598), 여호야긴 (598-597) 및 시드기야 (597-586) 시대를 거치며 사역했다. 이 시기는 유다 뿐 아니라 열방이 무너지던 혼란과 불안의 시대였다. 애굽, 앗수르, 바벨론 등의 제국이 약소국가들을 침략하고 서로를 파괴하던 중 앗수르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바니팔이 주전 627년에 죽자 그 후대 왕들은 바벨론 제국의 나보폴라살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이때가 주전 626년이며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은 해였고, 그는 유다의 쇠퇴와 멸망을 보며 사역하였고 유다의 멸망을 예언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혐오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주제**: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절대(무한)성 (창조주, 주권, 전능, 무소부재), 개인의 책임.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

**문학 형태**: 예레미야서는 산문도 더러 있지만 주로 시로 기록되었고, 예레미야의 시성은 걸출맞다. 시적인 반복법, 암호문, 두문법, 압운법 등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상징적 행동(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말라, 16:1-4. 고향 아나돗에 집을 사라, 32:6-15 등)이나 토기장이의 비유 (18:1-10), 무화과 두 광주리 (24장) 등의 청각적 효과도 자주 사용되었다.

**개요** (예레미야서는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이 특징임)

1. 선지자로 부르심 (1장)
2. 유다에 대한 경고 (2-35장)
3. 선지자의 고난과 핍박 (36-38장)
4. 예루살렘 멸망 (39-45장)
5. 열방에 대한 심판 (46-51장)
6. 부록 (52장)